

이탈리아 중서부 해안가 풍경



소렌토의 화장실



글·사진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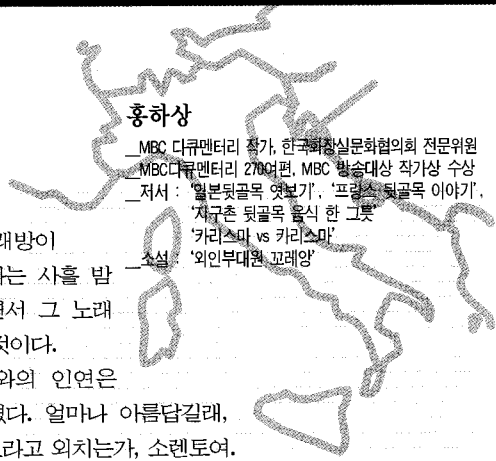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아, 소렌토로!... 도올아오래

때는 지금부터 30년전.
 고등학교 시절의 음악시험시간.
 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불렀건만 음정, 박자가 모두 엉망인 나에게 피아노 반주를 하던 음악선생님은 피아노를 치다말고 '깡' 하고 건반 위를 두 손으로 내리쳤다. 그리고는 대추나무 방망이로 짝은 지휘봉을 번쩍 들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머리통을 쥐어 감쌌다.
 다행히 선생님은 지휘봉으로 내리치진 않았다. 음악선생님은 밴드부 출신이어서 다소 강박 기질이 있었는데, 그 좋은 가곡을 무참하게 못 부르는 나를 짜려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다.
 점수는 간신히 60점이었다.
 나제만 면한 것이다.

아, 그 시절
 지금처럼 노래방이
 있었더라면 나는 사흘 밤
 이라도 새우면서 그 노래
 를 연습했을 것이다.
 소렌토와 나와와 인연은
 그렇게 맺어졌다.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는가, 소렌토여.
 드디어 작년 이맘때 나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소렌토에 갔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소렌토는 음악선생님의 대추나무 방망이와 늘 오버랩 되어있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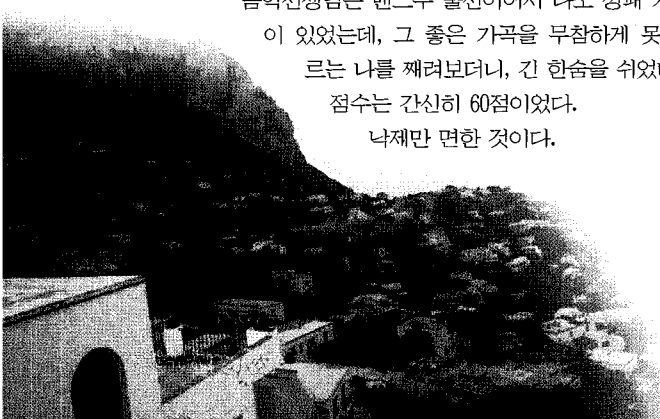
천혜의 휴향도시 소렌토

자동차를 타고 이탈리아 중서부 해안 가를 구불 구불 돌아 소렌토로 향했다.
 그 유명한 아말피 해안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깎아지른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펼쳐진 바



홍하상

-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전문위원
- MBC 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 저서 :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자주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 소설 '외인부대원 교례양'





▲카프리섬 입구 마리나그란데 포구

▲카프리섬의 산 중턱에 있는 아우구스토 광장

▲카프리섬 입구 마리나그란데 포구의 카페

위 해안, 그 구절양장의 해안 길을 따라 자동차는 곡예를 부리듯이 소렌토로 다가갔다. 산길에서 내려다 본 바닷물의 색은 에메랄드 빛, 그 자체였다.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닷물이 다 다르다. 거참 희한하게도 모든 바다는 우리나라의 동해안 같은 색깔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

영국 도버해협을 바닷물 색깔은 탁하며, 일본의 바다는 검고 시퍼렇고, 프랑스 남부해안의 바닷물 색은 녹색진주 같다. 그렇게 말할피 해안의 바닷물 색은 코발트 블루의 에메랄드빛이다.

마치 바닷물 속에 푸른 신호등을 켜 놓은 것 같다. 차는 굽이굽이 돌아 드디어 소렌토 시내로 들어섰다. 희디흰 담 벽 위에 벽돌색 오지기와를 엮은 주택이며 가게들.

해안 가 길은 차 두 대가 서로 아슬아슬하게 지나칠 정도로 좁은 2차선 도로인데 깔끔 단정해서 도시 전체가 눈부시다.

길가에는 올리브 나무가 늘어서 있고, 주택의 담장 안에는 오펜지 나무가 서 있다. 게다가 늦가을이어서 날씨는 쾌청하기 이틀데 없고 출기는커녕 반팔 티셔츠만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시내 도심으로 들어가니 차가 붐비기 시작한다.

늦가을에 관광객이 난리다. 소렌토는 여름에도 관광객이 넘치지만, 가을, 겨울에도 늘 관광객이 넘친다고 한다. 여름의 관광객은 해수욕을 즐기러 온 젊

은이들이 많다면, 가을, 겨울은 노년의 관광객이 많다. 겨울에도 날씨가 워낙 따뜻하니 노인들이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오늘날의 소렌토는 휴양도시이다.

유럽의 부호들이 여기에 별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맑은 공기와 따뜻한 날씨를 즐기면서 한철을 보낸다.

내가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천국과 가장 가깝다고 느낀 곳은 스위스의 산간마을인 메저브라는 곳이었다. 푸른 초원에 지어진 알프스의 통나무집, 그 사이로 냇물은 쏜살같이 흐르고 젓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곳.

‘아름다운 베르네, 맑고 고운 시냇물이 넘쳐흐르네’ 하는 그 노래의 고향 베르네와 멀지 않다. 풍경으로 치면 여기 소렌토도 그에 못지 않다.

유럽 최악의 교통문화 이탈리아

그러나 지금의 소렌토는 풍경은 아름다운데, 관광객들로 사시사철 북새통. 내가 갔던 작년 이맘때도 역시 그랬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차들이 뱅뱅거리고, 붐비고, 보행자는 마음대로 길을 건너고. 유럽에서 자동차 문화가 제일 엉망인 곳이 이탈리아다.

과속, 추월, 급제동, 신호위반 등이 우리와 막상 막하이다. 여기에도 도로표지판이 제멋대로여서 표지판만 믿고 따라 갔다간 삼천포 아닌 황천길로 직행이다. 실제로 파리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2천킬로를 차를 몰고 달려본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로 들어선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얼마나



▲카프리섬의 마리나그란데항



▲카프리섬 중턱 아우구스토 광장의 뒷골목 세계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다.



▲이탈리안 바버큐

유럽에서 파는 것 중 가장 양이 많다.

▲아스파라가스샐러드

매인디시 후에 채소를 먹는 것이 유럽의 다른나라와 다르다.

▲이탈리안 스파게티

트핑이 거의 없는 것이 정통스파게티이다.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

식은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이탈리아에서는 자세하기로 유명한 도로안내책자인 미슐랭 가이드도 맥을 못 춘다.

안내표지판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서도 이탈리아가 관광대국이라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소렌토 시내에 도착해서 대충 점심밥을 때웠다.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늘어선 식당에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다. 식당 안에는 일본관광객들 수백 명이 단체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요즘 일본도 이제는 깃발부대 시절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여전히 수백 명씩 몰려다닌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터라 4홉들이 생수만 한 병 들이켰다.

소렌토 앞 바다에 떠있는 환상의 섬, 카프리로 가기로 했다. 카프리 섬은 유럽에서는 명소 중의 명소로 꼽힌다. 유럽 전체에서 자연풍광의 넘버 원이 카프리가 아닌가.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이제는 파리 14구 터널에서 시속 196킬로의 속도로 달리다가 사망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신혼여행을 온 곳이 바로 카프리 섬이었다. 카프리 섬으로 가는 소렌토 항으로 갔다. 거기서 쾌속 페리로 30분.

쾌속페리는 소렌토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즈러밟고' 카프리 섬으로 들어섰다.

카프리 섬의 포구, 마리나그란데.

식당과 기념품가게가 장사진을 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어지럽다. 마리나그란데 포구에서 산악용 열차를 타면 15분만에 산 중턱에 있는 아우구스토 광장에 데려다 준다.

문화상품의 개발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이다

이 조그만 섬에 산악용 열차를 만들 줄 아는 이탈리아 사람들.

산악용 열차인 픽트램은 홍콩에도 있고, 스위스의 융프라우 산발에도 있는데, 모두 다 그곳의 명물들이다. 카프리 섬에서도 홍콩에서도, 스위스에서도 관광객들은 그걸 한 번 타보려고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수원시도 '팔달산'에 그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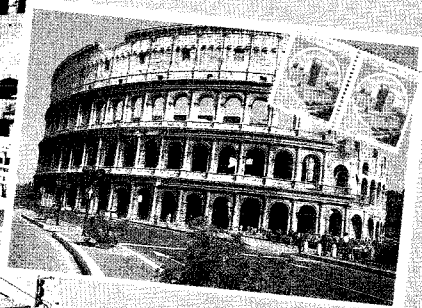
아니면 수원시 성곽인 화성을 한바퀴 따라 도는 관광 미니열차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열차에서 내리면 소풍가가 있고, 경기도산 적포도주와 수원스테이크를 먹고 저녁에는 정조의 능행과 다산 정약용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공연된다. 그것도 아니면 수원에서 에버랜드에 이르는 구간까지 별도의 꼬마열차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21세기의 산업은 문화를 파는 것이다. 굴뚝이 없는 상품이 문화상품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우구스토 광장에 올라섰다.

해발 200미터쯤 되는 산 중턱의 공원광장.

거기서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카프리 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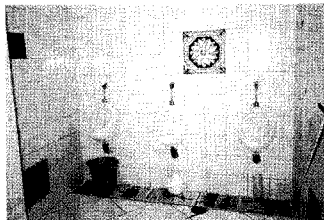


▲로마 콜로세움 원형경기장. 로마시대에 노예와 사자가 싸움을 하던 곳.



▲로마 콜로세움 원형경기장엽서와 로마 우표

울망졸망한 마을들이 내려다보인다.
 골짜기에서는 벌써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나는지
 마을 풍경이 희뿌연다.
 저녁밥을 짓는 풍경을 보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난
 다. 사람 사는 고향풍경이 불쑥 그리워진다.
 산 중턱의 카페에서 멀리 소렌토 항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 커피를 한잔 마신다.
 카페인의 농도가 일반 커피의 15배에 달하는 에스
 프레스 커피. 이 커피의 맛은 단연 이탈리아가
 최고다. 마치 니코틴 타액처럼 강인한 맛의 에스
 프레스 커피 한잔. 현대 이 커피는 마시다 보면
 너무 향이 진해서 결국은 물을 한 컵쯤 들이키게
 된다. 그 비싼 생수를 또 한 병사서 들이켰다.
 그리고....
 먹고사는데 바쁜 이 나그네는 서둘러 하산을 해
 서 다시 로마의 촬영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내일은 로마의 고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서 2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의 길>마지막
 편 제2부의 로케이션을 지휘해야 한다. 쫓기듯이
 일요일 하루 망중환을 내서 찾아
 온 카프리. 다시 배를 타고 소렌
 토로 돌아왔다.
 이제는 서둘러 전속력으로 악셀
 레이터를 밟아 로마까지 올라가
 야 할 시간.
 차를 타기 전, 빨 것은 빼야한다.



▲소렌토항구의 공중화장실

더구나 생수를 두 병이나 들이켰으니 오줌배가
 땡땡해서 배가 터질 지경이다.

옥에도 티가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소렌토 항의 공중화장실로 달려갔다. 하루 5천명
 이 드나든다는 소렌토 항의 공중화장실.
 들어가 보니 아뵤싸 이곳은 아름답지 못하다.
 눈부신 소렌토 그림엽서보다 더 아름다운 카프
 리 섬이 있는 이 항구에 공중화장실은...
 이용객들이 잘못 흘린 오줌방울을 처치하느라
 변기 밑에는 신문지를 깔아 놓았고, 그나마 변기
 하나가 새서 플라스틱 양동이를 받쳐 놓았다. 게
 다가 이용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변기 수가 부족
 하다. 그리고 세면대라는 것은 아예 없다. 대걸
 레를 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커다란 욕조가 하나
 있을 뿐. 아름다운 소렌토와 카프리의 명성에 결
 정적으로 먹칠을 하는 것은 이곳의 화장실이다.
 고귀한 신분인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왔을 때 소변을 보았다면 정말 찢찢
 한 표정으로 엉겨주춤 소변기
 밑의 신문지를 밟고 간신히
 일을 보았으리라.
 그렇다면 소렌토 시당국은 정
 말 반성해야 한다.
 풍경이 9단이면 뭐하나 화장
 실이 9급인 걸.